

『黃帝內經』의 ‘關節’의 의미에 대한 考察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講師 · ²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安鎮熹^{1,2*}

A Study on the Meaning of 'GuanJie(關節)' in the *Huangdineijing*

Ahn Jinhee^{1,2*}

¹Lecture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Post-doctoral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guanjie(關節) in the *Huangdineijing*.

Methods : Meanings of guan(關) and jie(節) were examined within the *Neijing*, after which the meaning of guanjie was studied in reference to usages of guan and jie. Other terms used similarly to guanjie were also studied.

Results & Conclusions : 1. The meaning of guanjie in the *Huangdineijing* could be inferred to meanings such as 'vital point and node', 'node of entrance gate', 'entrance gate and node', 'bolt and node', 'node of bolt', etc.

2. Most usages of guanjie in the *Huangdineijing* referred to 'pivotal node', while those mentioned in relation to edema or joint pain from wind and dampness meant 'node of entrance gate.'

3. The four entrances, eight nodes, extremity node, eight hollows, eight nodes of the limbs, twelve nodes, which are used similarly to guanjie, manage the five zang, communicate intimately via qi, while shen qi or zhen qi enter and exit.

4. Guanjie is closely linked to the five zang, while it is the entrance gate or pivotal node through which shen qi roams and travels. Therefore when interpreting a verse that includes 'guanjie', one must be aware of the perspectives of the *Huangdineijing* on qi, keeping in mind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ive zang, and that zhen qi enters and exits.

Key words : *Huangdineijing*(黃帝內經), guanjie(關節), *Kaitai Shinsho*(解體新書), shen qi(神氣), node(節)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Email : jini@khu.ac.kr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February 4, 2022), Revised(February 11, 2022), Accepted(February 11, 2022)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 簡稱)에는 총 17회의 ‘關節’¹⁾이 나오는데, 『內經』의 ‘關節’을 英譯한 책에서는 대부분 joint로 번역을 하였다. 한편 일본 사람들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때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받아들였는데, 一例로 독일어판 해부학책을 번역한 네덜란드어판 해부학책을 입수한 뒤 日本語(漢文)로 翻譯을 하여 『解體新書』²⁾를 출판했고, 이 책에서 네덜란드어판 해부학책에 기재된 라틴어 articulatio와 네덜란드어 geleding을 關節로 번역했다.³⁾⁴⁾ 그 후로 關節은

- 1) 『黃帝內經』에 나오는 關節은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關節’로 표기하고, 그 외에 『解體新書』나 현대 해부학책에서 쓰인 關節은 작은따옴표 없이 關節로 표기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 2) 해체신서. 네이버 지식백과. 2000. [cited on January 25, 2022]; Available from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93928&id=40942&categoryId=33414>
解體新書[かいたいしんしょ]는 1774년 일본에서 重譯되어 간행된 의학 서적으로 1774년에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澤]와 스기타 겐과쿠[杉田玄白]가 번역한 의학 서적으로, 1722년 독일의 쿨무스(Johann Adam Kulmus)가 저술한 『解剖圖表(Anatomische Tabellen)』를 네덜란드의 디텐(Gerardus Dichten)이 1734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Ontleedkundige Tafelen』을 출판하였고, 이를 다시 日本語(漢文)로 重譯하였으며, 본문 4권에 附圖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총론·형태·명칭 등을, 2권은 머리·입·뇌·신경·눈·귀·코·혀를, 3권은 가슴·격파·폐·심장·동맥·정맥 등을, 4권은 비장·간장·담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3) Ontleedkundige Tafelen. 慶應義塾大学. 2020. [cited on January 25, 2022]; Available from : <https://dcollections.lib.keio.ac.jp/ja/anatomia/dutch>
- 4) 域外漢籍珍本文庫編纂出版委員會 編.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主持編纂. 解體新書(域外漢籍珍本文庫子部).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北京. 人民出版社. 2011. pp.436-438. “其爲附屬者有二種, 一者關節也, 疎而可按知, 二骨或三骨相屬, 細分之則其一者疎也, 其一者密也, 按不可知焉. ……; 一者非關節也, 密而不可按知, 而繫之者, 有二種. 一者無物繫之, 亦細分之則如犬牙咬者三. 前頂頂之直中後頂也. 正相合者, 大陽之骨也. ……; 一者有物繫之, ……; 關節者, 以爲屈伸回轉也.” 『解體新書』卷之一 중 骨節分類篇 第四에서 關節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스기타 겐과쿠 외 지음. 김성주 옮김. 해체신서. 坡州. 한길사. 2014. pp.127-130. “뼈에 부속된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절이다. (뼈와 뼈 사이가) 성글어서 눌러보면 알 수 있다. 두 개나 세 개의 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세분하면 하나는 성긴 것이며, 다른 하나는 뻣뻣하여 눌러서 알 수가 없다. ……; 다른 하나는 관절이 아

현재 영어로 joint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인 『해부학』에서는 關節을 한글로 ‘관절’이라고 표기했다.⁵⁾ 그러나, 『內經』에 17회나 쓰인 ‘關節’이 현대 해부학적인 joint와 일치하는 개념인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명히 『內經』에서는 ‘關’과 ‘節’이 따로 쓰인 용례가 있으므로 이를 각각 분석하여 ‘關’과 ‘節’로 이루어진 ‘關節’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 해부학에서 關節에 대하여 關節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맞닿아 있는 결합 방식이다⁶⁾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과 『內經』에 쓰인 ‘關節’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본래 『內經』에서 ‘精’과 ‘神’이 따로 쓰였고 각각이 고유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Spirit을 ‘精神’으로 번역한 것과 마찬가지로 joint를 關節로 번역한 것이 혹시 오류에 속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호의 연구에서는 일본이 서구 의학의 영향을 받아 근대적인 관점에서 서양의 의학용어를 처음 정립한 것은 『解體新書』에 나타나는 용어가 그 효시를 이룬다고 하였고, 일본에서 간행된 『實用解剖學』의 용어와 이를 底本으로 번역한 『解剖學』 중 卷一의 용어를 서로 비교하였는데, 그중 『實用解剖學』에서 關節이라고 한 것을 『解剖學』에서 다만 한글로 관절이라고 했음을 밝혔다.⁷⁾

니다. 뻣뻣하기 때문에 눌러도 알 수 없지만, 연결된 상태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사물 없이 연결된 것인데, 다시 세분하면 마치 개의 어금니가 물린 듯한 것이 세 가지로, 前頂과 頭頂, 그리고 後頂이다. 이들은 정확하게 서로 합쳐져서 大陽骨이 된다. ……; 다른 하나는 사물로 연결되어 있다. ……; 관절은 몸을 굽히고 펴고 회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 5) 해부학 권1. 국립한글박물관. 2014. [cited on January 25, 2022]; Available from : https://www.hangeul.go.kr/bbs/publicBbsView.do?curr_menu_cd=0106040000&pageIndex=1&bbs_id=4&bbs_no=32&mode=&search_type=title&search_text=
- 6) 관절. 네이버 지식백과. 2000. [cited on January 25, 2022]; Available from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4632&id=40942&categoryId=32319>

정인혁 등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부학 용어가 걸어진 길을 살피는 과정에서 關節을 언급했는데, 예전 일본용어를 그대로 借用하여 쓴 용례에서 關節을 1944년 이전에는 結合으로 쓰다가 1969년에 連結로 바뀌는 내용을 받아들여 1981년 둘째판 해부학용어집에서 결합, 연결로 표기하고 있음을 밝혔다.⁸⁾

양영규 등의 연구에서는 五體 중 肉과 관련한 用語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關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黃帝內經』의 用語와 관련되어 연구 방법을 참고할 수 있었다.⁹⁾¹⁰⁾

중국 논문 중 孫迪의 논문에서는 인체 구조 術語 중 關節類 術語를 따로 배치하여 肢節, 八節, 八虛, 八竅, 十二節, 四關 등의 용어를 다루어 關節과의 상관성을 살필 수 있었고¹¹⁾, 牛亞華는 『解體新書』의 成書와 그 내용 중에서 關節 관련된 원문을 직접 소개하였고, 『解體新書』를 번역한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澤)가 古方派 한의사로서 『解體新書』를 번역할 때 자연스럽게 漢醫典籍으로부터 대량의 해부학 어휘를

흡수하여 번역을 시행했다고 하였으며, 『內經』을 인용한 어휘들도 소개하였다.¹²⁾

연구방법은 첫째, 『內經』 원문에서 ‘關’을 검색어로 검색한 원문을 가지고 ‘關’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해보고, 둘째, ‘節’을 검색어로 검색한 원문을 가지고 ‘節’의 용어의 의미를 정리해보며, 셋째, ‘關節’을 검색어로 검색한 뒤 각 편 내의 ‘關節’의 의미를 앞뒤의 맥락을 살펴서 파악하되 미리 검색하여 살핀 『內經』 내의 ‘關’의 용례와 ‘節’의 용례를 참고로 하여 ‘關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內經』 英譯本¹³⁾도 함께 참조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內經』 내에서의 ‘關節’이 해부학적인 joint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쓰임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서 『內經』 내의 ‘關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內經』 내의 ‘關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內經』에서 ‘關’이라는 용어의 쓰임, ‘節’이라는 용어의 쓰임을 먼저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關節’이라는 용어의 쓰임을 살펴 『內經』 내의 ‘關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內經』 내 ‘關’이라는 용어의 의미

『內經』에서 ‘關’을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총 76회가 검색되었는데, 그 의미를 정리해보면, ‘關元’ 등 인체의 ‘急所’를 의미하는 경우, ‘關蟄’ 등 ‘잠그다’를 의미하는 경우, ‘關門不利’ 등 ‘關門’을 의미하는 경우, “腎者, 胃之關也.”¹⁴⁾ 등 ‘關鍵’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었다.¹⁵⁾ 『說文解字』에서 ‘關’에 대하여

7) 김경호. 일본어에서 차용된 의학용어 조사 연구-번역의학 서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007. 1(33). pp.3-19.
8) 정인혁, 고기석. 해부학 용어가 걸어진 길. 대한체질인류학회지. 2017. 30(4). pp.113-133.
9) 양영규, 정혁상, 백유상. 『黃帝內經』의 肉 개념과 관련 用語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 28(2). pp.115-145.
10) 上記한 논문 이외에 『解體新書』와 관련해서는 김성수와 김영수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었고, 박형우 등의 연구에서는 한국 최초의 해부학교과서의 편찬 배경을 참고할 수 있었고, 고은숙의 연구에서는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인 『해부학』의 소장 현황을 참고할 수 있었으며, 여인석 등의 연구에서는 『解體新書』의 번역 과정과 의학 용어의 번역 원칙 등을 참고할 수 있었다.
김성수. 일본의 해부학 수용 초기의 특성-『해체신서(解體新書)』와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에 나타난 세계와 인체. 연세의사학. 2018. 21(2). pp.53-77.
김영수. 일본의 해부학 서적 번역과 한말 해부학 교과서. 연세의사학. 2018. 21(2). pp.79-97.
박형우, 박준형.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와 편찬 배경. 대한해부학회지. 2006. 39(6). pp.461-469.
고은숙.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해부학』. 연세의사학. 2018. 21(2). pp.101-125.
여인석, 황상익.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작 과정. 의사학. 1994. 3(2). pp.218-229.
11) 孫迪. 『黃帝內經』形體結構複音術語研究. 遼寧中醫藥大學博士學位論文. 2021.

12) 牛亞華. 中日接受西方解剖學之比較研究. 西北大學. 2005. pp.1-178.
13)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p.1-831. 『內經』 英譯本은 『素問』과 『靈樞』를 모두 번역하고 있는 판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3.
15)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大漢韓辭典. 서울. 教學社. 1998. pp.3492-3494. 關의 기본적인 의미를 『教學大漢

“關以木橫持門戶也。从門夨聲。”¹⁶⁾이라고 했으니, 이는 ‘關’의 원래 의미가 문을 나무로써 가로로 질러서 잠그는 빗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며, 여기에서 그 의미가 파생되어 ‘잠그다’, ‘關門’, ‘關鍵’, ‘急所’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內經』 내 ‘節’이라는 용어의 의미

한편 『內經』에서 ‘節’을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총 160회가 검색되었는데, 그 의미를 정리해보면, ‘日下一節’, ‘背三節’, ‘八節’, ‘十二節’, ‘本節’ 등 주로 마디에서 파생된 ‘뼈마디’를 뜻하는 ‘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飲食不節’, ‘喜怒不節’, ‘起居不節’ 등에서는 ‘절제하다’라는 동사로, ‘食飲有節’, ‘起居無節’, ‘治節出焉’ 등에서는 ‘節度’를 의미하는 명사로, ‘節而刺之’에서는 ‘節度에 맞게 하다’라는 동사로, ‘節陰陽而調剛柔’에서는 ‘조절하다’라는 동사로, ‘夢禮節拜起’에서는 ‘예절’의 의미로 쓰였다.¹⁷⁾ 『說文解字』에서 ‘節’에 대하여 “竹約也, 从竹即聲. 約, 纏束也. 竹節如纏束之狀.”¹⁸⁾이라고 했으니, ‘節’은 기본적으로 대나무의 마디를 가리키며, 마디가 있음으로써 대나무가 무한정 뻗어 나가지 않고 한 템포 쉬면서 숨을 고르고 성장을 조절하는데, 여기에서 그 의미가 파

생되어 ‘뼈마디’, ‘절제’, ‘절도’, ‘예절’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內經』 내 ‘關節’이라는 용어의 의미

‘關’의 의미가 ‘急所’, ‘잠그다’, ‘關門’, ‘關鍵’ 등을 지니고, ‘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마디를 나타내게 되므로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는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關門이 되는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關鍵이 되는 마디)’ 등으로 그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다.¹⁹⁾

따라서 앞으로는 『內經』에서 ‘關節’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各篇의 ‘關節’의 의미를 앞뒤 맥락을 살펴서 파악하되 미리 검색하여 살핀 『內經』 내의 ‘關’의 용례와 ‘節’의 용례를 참고로 하여 ‘關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內經』에서 ‘關節’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총 17회가 검색되었는데, 이 중 8회는 『素問』에서, 9회는 『靈樞』에서 쓰였다. 더 자세히 말하면 『素問』 중 「刺禁論」에서 1회, 「鍼解篇」에서 1회, 「氣交變大論」에서 1회, 「六元正紀大論」에서 4회, 「至眞要大論」에서 1회가 쓰였고, 『靈樞』 중 「官鍼」에서 1회, 「本藏」에서 2회, 「五禁」에서 1회, 「刺節眞邪」에서 3회, 「九鍼論」에서 2회가 쓰였다. 各篇에 쓰인 ‘關節’을 앞뒤에 있는 문장의 脈絡에 따라 살펴보면 미리 검색하여 살핀 『內經』 내의 ‘關’의 용례와 ‘節’의 용례를 참고로 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素問·刺禁論』

刺陰股中大脈, 血出不止, 死. 刺客主人內陷中脈, 爲內漏, 爲蠱. ……., 刺膝髓出液, 爲跛. ……., 刺肘中內陷, 氣歸之, 爲之不屈伸. ……., 刺關節中, 液出, 不得屈伸.²⁰⁾

19) ‘關’에 ‘急所’, ‘잠그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關’과 ‘節’이 합쳐지면 ‘急所の 마디’, ‘잠그는 마디’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쓰지 않는 표현이므로 이는 제외하였다.

20) 朴贊國 譯注. 改訂版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坡州. 集文堂. 2005. pp.858-861. “사타구니에 침을 놓다가 큰 血脈을 맞춰 피가 나는 것이 그치지 않으면 죽고, 客主人 穴에 침을 놓다가 안으로 쪽 들어가서 血脈을 맞으면 안에서 고름이 흐르거나 귀머거리가 되고, 膝髓에 침을 놓아 진액이 흘러나오면 절름발이가 되고, ……., 팔꿈치 가

韓辭典』에서 찾아본 결과 1. 빗장 관, 2. 잠글 관, 3. 관문 관, 4. 문 관, 5. 가로막을 관, 6. 저울 관, 7. 기관 관, 8. 인체의 급소 관, 9. 관여할 관, 10. 켈 관, 11. 거쳐 지나갈 관, 12. 받아들일 관, 13. 두루 겪을 관, 14. 엮일 관, 15. 아릴 관, 16. 통고할 관, 17. 공문 관, 18. 관의 문지기 관, 19. 관세 관, 20. 관건 관, 21. 둘 관, 22. 받아가질 관, 23. 기부할 관, 24. 관자 관, 25. 자물쇠 관, 26. 관리할 관, 27. 엮일 관, 28. 연관될 관, 29. 시행할 관, 30. 성(姓) 관 등이 있었다.

16) 許慎 撰. 段玉裁 注. 許惟賢 整理. 說文解字注 下.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p.1024-1025.

17)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大漢韓辭典. 서울. 教學社. 1998. pp.2396-2398. 節의 기본적인 의미를 『教學大漢韓辭典』에서 찾아본 결과 1. 마디 절, 뼈마디 절, 2. 단락 절, 3. 절계 절, 4. 법도 절, 법칙, 준칙, 알맞은 정도 절, 5. 예절 절, 6. 등급 절, 7. 알맞을 절, 8. 절약할 절, 9. 때 절, 10. 절기 절, 11. 부절 절, 12. 명절 절, 13. 두공 절, 14. 절제할 절, 15. 높고 험한 모양 절, 16. 악기 이름 절, 17. 박자 절, 18. 레이름(水澤節) 절, 19. 일 절, 20. 증혈 절, 21. 조절할 절, 22. 억제할 절, 23. 성(姓) 절 등이 있었다.

18) 許慎 撰. 段玉裁 注. 許惟賢 整理. 說文解字注 上.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337.

上記 부분은 『素問·刺禁論』의 후반부 내용인데, 특정 부위를 刺鍼하게 되면 出血을 일으켜 죽게 되거나 귀머거리나 질름발이가 되는 등 刺鍼의 부작용을 논했다. 위의 문장 중 ‘關節’은 “刺關節中, 液出, 不得屈伸.”에서 나오는데,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節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했을 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關節’을 찔러서 그 안에 있는 津液이 흘러나와 그 부작용으로 굽히고 펴는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 여기서의 ‘關節’은 인체 내에서 腰椎나 膝과 같이 비교적 크고 주요한 마디, 즉 關鍵의 마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刺禁論」에 나오는 ‘關節’을 the lumbar vertebra or the joints of the four limbs 라고 英譯하였다.²¹⁾

2) 『素問·鍼解』

人肝目應之九, 九竅三百六十五, 人一以觀動靜, 天二以候五色, 七星應之, 以候髮母澤, 五音一以候宮商角徵羽, 六律有餘不足, 應之二地, 一以候高下有餘, 九野一節俞應之, 以候閉節, 三人變一分, 人候齒泄多血少, 十分角之變五分, 以候緩急六分, 不足三分, 寒關節, 第九分, 四時人寒溫燥濕, 四時一應之, 以候相反, 一四方各作解.²²⁾

이 문장에 대하여 王冰은 “이 124字는 좀 먹은 竹簡으로 문드러진 문장이어서 의리가 손상되고 이지러져 가히 찾아 연구할 수가 없다. 상고시대 책에서는 일부러 또한 그것을 기재하여서 이로써 후대의 갖춰진 판본을 기다린다.”²³⁾라고 했고, 張介賓도

운데에 침을 놓다가 안으로 폭 들어가서 氣가 몰리면 그 때문에 屈伸하지 못하게 되고, ……關節 가운데에 침을 놓다가 진액이 흘러나오면 屈伸하지 못하게 됩니다.”

21)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242. “When pricking the lumbar vertebra or the joints of the four limbs, if there is liquid flowing out, the patient will lose the ability of bending, stretching and moving.”

22) 朴贊國 譯注. 改訂版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坡州. 集文堂. 2005. p.879.

23)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三). 大阪. オリエント出版社. 1987. pp.221-223. “此一百二十四字, 蠹簡爛文, 義理殘缺, 莫可尋究, 而上古書, 故且載之, 以竹後之具本也. 新校

“이 129字는 옛 경전이고, 竹簡이 좀먹어 義理가 손상되고 이지러졌으니, 반드시 착오가 있어 감히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다.”²⁴⁾라고 했으며,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에서도 “역대 주가들이 문맥이 통하지 않는 문장으로 보았다. 해석과 주석을 하지 않는다.”²⁵⁾고 하였으므로, 論者도 이에 따라 ‘寒關節’에 대해서는 억지로 해석하지 않았다. 『內經』 英譯本에서도 ‘九竅三百六十五’부터 ‘一四方各作解’까지 123字를 英譯하지 않았다.²⁶⁾

3) 『素問·氣交變大論』

帝曰, 善. 願聞其時也. 岐伯曰, 悉乎哉問也. 木不及, ……; 春有慘淒殘賊之勝, 則夏有炎暑燔燻之復. 其眚東, 其藏肝, 其病內舍肱脇, 外在關節.

火不及, ……; 夏有慘淒凝冽之勝, 則不時有埃昏大雨之復. 其眚南, 其藏心, 其病內舍膺脇, 外在經絡.

土不及, ……; 四維發振拉飄騰之變, 則秋有肅殺霖霏之復. 其眚四維, 其藏脾, 其病內舍心腹, 外在肌肉四支.

金不及, ……; 夏有炎燔燔燻之變, 則秋有冰雹霜雪之復. 其眚西, 其藏肺, 其病內舍膺脇肩背, 外在皮毛.

水不及, ……; 四維發埃昏驟注之變, 則不時有飄蕩振拉之復. 其眚北, 其藏腎, 其病內舍腰脊骨髓, 外在谿谷踣膝.²⁷⁾

正云, 詳王氏云, 一百二十四字, 今有一百二十三字, 又亡一字.” 王冰이 가리키는 124字는 ‘九竅三百六十五’부터 ‘一四方各作解’까지를 가리키는데, 실제로 글자수를 세면 123字이므로 新校正에서 한 글자가 망실되었다고 하였다.

24)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756. “此一百二十九字, 古經蠹簡, 義理殘闕, 必有遺誤, 不敢強解.”

25) 朴贊國 譯注. 改訂版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坡州. 集文堂. 2005. p.879.

26)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p.247-248.

27)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119-126. “木이 불급하여 ……; 봄에 춥고 음산하여 만물을 해치는 氣運이 勝하니 여름에 타는 더위로 사르는 報復이 있습니다. 그 재앙은 동쪽에 있고, 그 藏은 肝이고, 그 病은 안으로 肱脇에 머물고, 밖으로는 關節에 있습니다. 火氣가 不及하여 ……; 여름에 陰散하여 만물이 자라지 못하고 영겨 불으니 곧 때 없이 먹구름이 일어 큰비가 내립니다. 그 災殃은 남녘에 있고, 藏으로는 心臟에서 받고, 그 병은 안으로는 膺脇에 있고, 밖으로는

上記 문장은 『素問·氣交變大論』의 중반부 내용인데, 木不及과 관련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병변은 주로 '關節'에, 火不及과 관련해서는 經絡에, 土不及과 관련해서는 肌肉과 四肢에, 金不及과 관련해서는 皮毛에, 水不及과 관련해서는 谿谷踰膝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五體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봄이 되면 때에 맞춰서 木氣가 적절해야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등 生化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木氣가 부족하여 겨울과 같은 음산함이 계속된다면 여름에는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위가 더 심해지고, 기본적으로 木不及이므로 病變은 안으로는 五臟 중에서 肝에 나타나고, 밖으로는 '關節'에 나타난다고 했다. 여기서의 '關節'은 활동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曲直의 의미를 지니는 木에 속하는 肝에 배속된다고 할 수 있다.

火氣가 不及하면 이를 克하는 水氣가 여름에 일어나 만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土氣가 일어나 큰비가 일어나는데 안으로 心藏에 병이 있다면 밖으로는 經絡에 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經絡은 經脈으로 脈과 연관되고, 心主脈이므로 火不及의 영향이 經絡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土氣가 不及하면 이를 치는 木氣가 왕성해지고, 다시 이에 대한 보복으로 金氣가 일어나게 된다. 기본적으로 土不及이므로 안으로는 土에 속하는 脾藏에 병이 오고, 밖으로는 肌肉 부분과 몸의 四維에 해당하는 四肢에 질병이 발현된다.

金氣가 不及하면 이를 치는 火氣가 왕성해지고 다시 이에 대한 보복으로 水氣가 일어나게 된다. 기

經絡에 있습니다. 土氣가 不及하여 ……., 四季에 바람이 세게 일어 나무가 부러지고 만물을 날려 버리는 變이 있으니, 가을에 肅殺이 강하여 나무가 죽고 장마비가 내립니다. 그 재앙은 四季에 있고, 그 病은 안으로 心腹에 있고, 밖으로는 肌肉과 四肢에 있습니다. 金氣가 不及하여 ……., 여름에 불벌로 만물을 태우는 變이 있으니, 가을에 우박과 서리와 눈이 내리는 보복이 있습니다. 그 재앙은 서늘하고, 그 藏은 肺藏이고, 그 病은 안으로 膈脇과 肩背에 있고, 밖으로는 皮毛에 있습니다. 水氣가 不及하여 ……., 四季에 먹구름이 일어 어둡고 폭우가 내리는 變이 있으면 불시에 바람이 세게 일어 날려 흩어버리고 나무를 부러뜨리는 變이 있습니다. 그 災殃은 북녘에 있고, 그 藏은 腎藏이고, 그 病은 안으로 腰脊과 骨髓에 있고, 밖으로는 溪谷과 踰과 膝에 있습니다.”

본적으로 金不及이므로 안으로는 金에 속하는 肺藏에 병이 오고, 밖으로는 몸의 가장 겉부분인 皮毛에 병이 나타난다. 五臟 중에서 肺가 가장 위에 있어서 外氣와의 접촉이 가장 활발한 것처럼 皮毛도 外氣와 가장 먼저 닿는 지점이기에 겉으로 皮毛에 병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水氣가 不及하면 이를 치는 土氣가 왕성해지고 다시 이에 대한 보복으로 木氣가 일어나게 된다. 기본적으로 水不及이므로 안으로는 水에 속하는 腎藏에 병이 나타나고, 밖으로는 谿谷踰膝에 나타난다고 했다.²⁸⁾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하여 앞뒤 맥락을 살펴 보았을 때 여기에 쓰인 '關節'은 木不及으로 인하여 안으로는 肝에, 밖으로는 주요 관절에 병변이 나타나므로 關鍵이 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氣交變大論」에 나오는 '關節'을 joints라고 英譯하였다.²⁹⁾

4) 『素問·六元正紀大論』

凡此太陰司天之政, 氣化運行後天, 陰專其政, 陽氣退辟, ……., 民病寒濕腹滿, 身臃憤, 附腫痞逆, 寒厥拘急, 濕寒合德, 黃黑埃昏, 流行氣交. ……., 初之氣, 地

28) 谿谷에 대하여 『素問·氣穴論』에서 “願聞谿谷之會也. 岐伯曰, 肉之大會爲谷, 肉之小會爲谿, 肉分之間, 谿谷之會, 以行榮衛, 以會大氣.”(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03.)라고 하였다. 谿谷은 肉이 모이는 곳으로 뼈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부위에 肯綮을 이루어서 인대와 뼈의 접촉이 일어나고 이때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뼈의 문제와 연관된다. 谿谷踰膝 중 踰은 장딴지로 장딴지 자체는 肌肉에 속하지만 평범한 肌肉이 아니고, 주위에 Tibia와 Fibula가 둘러싸고 있으며, 천하 장사들은 특히 장딴지가 크고 발달해 있는데, 보통 장딴지가 크고 발달해 있으면 뼈가 크고 잘 생겼으므로 장딴지는 단지 肌肉의 상태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인체 내 뼈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膝도 인체에서 중요한 뼈로, 뼈가 가장 밖으로 가장 넓게 드러난 곳으로 骨의 병변이 잘 드러나는 곳 중 하나이다(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119-126.)

29)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345. “The calamity often occurs in the east, in a man, the disease often occurs in the liver. The attacking position of the disease is in the hypochondrium inside and joints outside.”

氣遷, 寒乃去, 春氣正, 風乃來, 生布萬物以榮, 民氣條舒, 風濕相薄, 雨乃後. 民病血溢, 筋絡拘強, 關節不利, 身重筋痿.³⁰⁾

太陰司天之政에서 太陰이 司天일 때에 初之氣는 厥陰에 해당하는데, ‘血溢’과 ‘筋絡拘強’과 ‘關節不利’와 ‘身重筋痿’는 대부분 몸 안에서 風濕이 相搏하여 생기는 증상들이다. 인체도 天地의 氣를 따라 下焦에서 陽氣가 계속 발생되고 濕도 계속 발생하지만 筋肉이나 ‘關節’에서 氣의 肅降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전의 濕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濕이 흡수되지 못하므로 마르는 곳은 계속 마르고, 濕한 곳은 계속 濕하다. 그러므로 ‘血溢’, ‘筋絡拘強’과 같이 風이 盛한 病症과 ‘關節不利’, ‘身重筋痿’와 같이 濕이 盛한 病症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³¹⁾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하여 앞뒤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 쓰인 ‘關節不利’는 風濕相薄으로 인한 關節痛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關節’은 인체 내의 關門이 되는 마디 혹은 關鍵이 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六元正紀大論」 중 太陰司天之政에 나오는 ‘關節’을 joint라고 英譯하였다.³²⁾

凡此少陰司天之政, 氣化運行先天, 地氣肅, 天氣明, 寒交暑, 熱加燥, 雲馳雨府, 濕化乃行, 時雨乃降.

……, 初之氣, 地氣遷, 燥將去, 寒乃始, 蟄復藏, 水乃冰, 霜復降, 風乃至, 陽氣鬱. 民反周密, 關節禁固, 腰腫痛, 炎暑將起, 中外瘡瘍.³³⁾

少陰司天之政의 客氣는 少陰이 司天일 때에 初之氣가 太陽寒水이기 때문에 춥지만, 主氣는 厥陰風木이기 때문에 안으로 風木이 작용하여 陽氣가 발생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寒氣 때문에 腠理가 오히려 周密하여 病을 일으켜 ‘關節’이 잘 움직이지 않고 밑에서 발생한 陽氣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腰腫에서 막혀 허리와 콩무니뼈가 아프며 무릎위가 오려고 할 때에 初之氣에서 울체되었던 陽氣가 內外에 瘡瘍을 일으킨다.³⁴⁾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하여 앞뒤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 쓰인 ‘關節’은 인체 내의 關鍵이 되는 마디로 사료되며, ‘關節禁固’는 ‘關節不利’보다 더 심한 病變으로 ‘關節’이 움직이지 않고 운동에 제한이 오는 것을 말한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六元正紀大論」 중 少陰司天之政에 나오는 ‘關節’을 joints라고 英譯하였다.³⁵⁾

水鬱之發, 陽氣乃關, 陰氣暴舉, 大寒乃至, 川澤澌凝, 寒霧結爲霜雪, 甚則黃黑昏翳, 流行氣交. 乃爲霜殺, 水乃見祥. 故民病寒客心痛, 腰腫痛, 大關節不利,

30)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243-251. “무릇 이 太陰이 司天하는 해의 政은 氣화와 運의 行이 節氣보다 늦고, 陰이 政을 專橫하니, 陽氣는 물러서 피하고 …… 백성들은 寒濕으로 인한 腹滿과 脹滿과 浮腫과 痞滿氣逆과 寒厥拘急을 앓고 濕과 寒이 合德하니 黃黑한 티끌이 氣交之間에 유행합니다. …… 初之氣는 地氣가 옮겨가면 寒이 물러가고 春氣가 빠르게 들어오니 風이 들어오면 生氣가 만물에 퍼져 繁榮하며 백성들의 氣도 맥락을 따라 퍼지지만, 風과 濕이 서로 부딪혀 비가 늦어지니 백성들이 血溢과 筋絡拘強과 關節不利와 身重筋痿를 앓습니다.”

31)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243-251.

32)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p.388-390. “Whenever Taiyin is controlling the heaven energy and play its role, ……in the stage of the initial energy, stiffness and contraction of muscles, joint disease.”

33)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254-260. “무릇 이 少陰이 司天하는 해의 政은 氣화와 運의 行이 節氣보다 빠르고, 地氣는 엄숙하며 天氣는 明하여 寒이 물과 교류하며, 熱이 燥에 加臨하니 運이 雨府로 가면 濕化가 행하여져 時雨가 내립니다. …… 初之氣는 前年の 在泉之氣인 少陽이 옮겨가고 물가 장차 물러가려 하니, 추위가 이제야 시작되어 蟄蟲이 다시 숨고 물이 얼며 서리가 다시 내리는데, 속으로는 主氣의 風氣가 이르렀으니 陽氣가 발생하므로 陽氣가 추위에 눌려 鬱하고, 백성들은 도리어 腠理가 周密해져 關節이 잘 움직이지 않고, 腰腫가 아프며, 장차 炎暑가 올 즈음에 中外로 瘡瘍이 생깁니다.”

34)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254-260.

35)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p.393-395. “Whenever Shaoyin is controlling the heaven energy and playing its role, ……in the stage of the initial energy, ……inconvenience in moving the joints and pain in the loins and buttocks.”

屈伸不便, 善厥逆, 痞堅, 腹滿. 陽光不治, 空積沈陰, 白埃昏暝, 而乃發也.³⁶⁾

여기서는 水氣가 울체되었다가 갑자기 발휘되는 水鬱之發을 언급했는데, 이는 陽氣가 衰弱해지면 이제까지 응축되어 있던 水氣의 陽氣潛藏力이 한꺼번에 발휘되기 때문에 큰 추위가 몰려온다는 말이고³⁷⁾, 큰 추위로 인하여 心痛, 腰背痛 등이 나타나고, 인체에서 큰 關鍵이 되는 마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屈伸이 불편하고 厥逆症이 잘 생김을 말했다.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하여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靈樞·刺節眞邪』에서 “腰脊者, 身之大關節也.”³⁸⁾라고 한 것에 따르면 大關節不利에서 ‘關節’은 허리뼈 또는 척추와 같은 인체의 關鍵이 되는 마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六元正紀大論」 중 水鬱之發에 나오는 ‘關節’을³⁹⁾ joint로 英譯하였다.

5) 『素問·至眞要大論』

帝曰, 善. 客主之勝復奈何. ……岐伯曰, ……太陽司天, 客勝則胸中不利, 出清涕, 感寒則欬, 主勝則喉啞中鳴. 厥陰在泉, 客勝則大關節不利, 內爲經強拘瘰, 外爲不便, 主勝則筋骨繇併, 腰腹時痛.⁴⁰⁾

36)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315-316. “水氣가鬱하여 발작함은 陽氣가 비로소 물러가고 陰氣가 급작스럽게 들러서 큰 추위가 이에 이르면 내와 못이 뽕뽕 열고 찬 안개가 맺혀서 서리와 눈이 되고 심하면 황흑색으로 어두워져 가리고 유행하며 氣가 교차하다가 이에 서리가 내리면서 肅殺하여 水가 이에 조짐을 보이니 그러므로 백성들의 병은 寒氣가 침입하여 心痛과 腰背痛이 있으며 큰 關節들이 원활하지 못하여 급하고 퍼는 것이 불편하며 厥逆을 잘하고, 痞堅하며 腹滿합니다. 陽光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공중에 검은 구름이 쌓이다가 흰 티끌이 자욱해지면서 水鬱이 이에 발작합니다.”

37)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315-316.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314-323.

39)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p.417-418. “In the bursting out of the suppressed water energy, ……difficult in stretching and bending the large joints.”

上記 부분은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客主의 勝復을 설명한 부분으로 司天의 客勝·主勝과 在泉의 客勝·主勝을 언급한 부분 중 厥陰在泉에서 客勝할 때 ‘關節’이 1회 나온다.

厥陰이 在泉일 때는 少陽이 司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黃元御는 『素問縣解』에서 風이 동함으로써 陰血이 소모되어 ‘關節’이 滑利하지 못하다고 하였고⁴¹⁾, 張介賓은 『類經』에서 肝木의 제어로 인하여 ‘關節’이 滑利하지 못하게 됨을 설명하였다.⁴²⁾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하여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靈樞·刺節眞邪』에서 “腰脊者, 身之大關節也.”⁴³⁾라고 한 것에 따르면 大關節不利에서 ‘關節’은 허리뼈 또는 척추와 같은 인체의 關鍵이 되는 마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至眞要大論」 중 厥陰在泉에 나오는 ‘關節’을 joint로 英譯하였다.⁴⁴⁾

40)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406-415.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좋습니다. 客氣와 主氣의 勝復은 어떠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客氣와 主氣는 勝하기만 하고 復이 없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그 逆하고 從함은 어떠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主氣가 이기면 逆이요, 客氣가 이기면 從이 하늘의 道입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病을 생함은 어떠합니까. ……厥陰이 在泉하여 客氣가 이기면 큰 關節이 不利하니 안으로는 筋肉이 경련이 일어나고 강직이 되며 구급과 계종이 발생하며 밖으로는 불편하고, 主氣가 이기면 筋骨이 동요하며 攣縮하며 腰腹이 때로 아픈 합니다.”

41) 黃元御 原著. 孫國中, 方向紅 校注. 素問縣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435. “厥陰在泉則風木旺, 肝主筋, 諸筋者, 皆會於節, 風動血耗, 筋膜攣縮, 故關節不利, 經強拘急, 風木振撼, 則筋骨繇並, 木陷於水則腰痛, 木鬱克土則腹痛也. (關節拘急者, 肝木之陷, 筋骨繇並者, 膽木之逆).”

42)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1169. “四氣盡終氣, 地氣主之也. 寅申年, 厥陰在泉, 以風木之客, 而加於太陽陽明太陽之主, 客勝主勝, 皆以木居土金水之鄉, 肝木受制於下, 故爲關節不利, 經強拘瘰, 筋骨等病, 繇, 搖同, 併, 攣束不開也.”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314-323.

44)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p.448-449. “When Jueyin is affecting the earth energy, if the guest energy is overcoming, the patient will find difficulty in moving

6) 『靈樞·官鍼』

病在皮膚無常處者，取以鑱鍼於病所，膚白勿取。病在分肉間，取以員鍼於病所。病在經絡痲痺者，取以鋒鍼。……，病在中者，取以長鍼。病水腫不能通關節者，取以大鍼。⁴⁵⁾

上記 부분은 『靈樞·官鍼』 전반부에 나오는 부분으로 病所가 어디냐에 따라서 九鍼을 구분하여 쓰는 것을 말하였다. 이 중 ‘關節’은 “病水腫不能通關節者，取以大鍼.”에 나오는데,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하여 앞뒤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官鍼」에 쓰인 ‘關節’은 水腫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인체 내 關門이 되는 마디 혹은 關鍵이 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다.⁴⁶⁾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官鍼」에 나오는 ‘關節’을 joint로 英譯하였다.⁴⁷⁾

7) 『靈樞·本藏』

黃帝問於岐伯曰，人之血氣精神者，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經脈者，所以行血氣而營陰陽，濡筋骨，利關節者也。衛氣者，所以溫分肉，充皮膚，肥腠理，司關闔者也。志意者，所以御精神，收魂魄，適寒溫，和喜怒者也。是故血和則經脈流行，營覆陰陽，筋骨勁強，關節清利矣。⁴⁸⁾

his joints.”

45)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上.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90-92. “病이 皮膚에 있어서 일정한 病所가 없는 경우에는 病所에 鑱鍼으로써 취하되 피부가 흰 경우에는 취하지 말라. 病이 分肉 사이에 있으면 病所에 員鍼으로써 취하라. 病이 經絡에 있고 고질적인 痺證인 경우에는 鋒鍼으로써 취하라. ……，병이 속에 있는 경우에는 長鍼으로써 취하라. 병들어 水腫으로 關節을 통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鍼으로써 취하라.”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314-323. 이는 『靈樞·刺節眞邪』에 나오는 去爪法과도 연관된다. 『靈樞·刺節眞邪』에서 去爪에 대하여 “去爪者，刺關節肢絡也。……黃帝曰，刺節言去爪，夫子乃言刺關節肢絡.”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去爪는 關節肢絡에 자침하여 水腫을 치료하는 鍼法이기 때문이다.

47)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p.537-538. “When treating edema and the joints of the patient are choppy, it can be treated with the large needle.”

48)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上記 부분은 『靈樞·本藏』의 전반부로 ‘關節’이라는 단어는 총 2회 나온다. 한 번은 經脈의 역할을 설명할 때 나오고, 또 한 번은 血이 造化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할 때 나온다. 『靈樞·本藏』은 血氣精神을 먼저 얘기하였고, 뒤이어서 血과 관련이 있는 經脈의 역할을 말하였고, 바로 이어서 氣와 관련이 있는 衛氣의 역할을 설명했으며, 바로 이어서 精神과 관련이 있는 志意의 역할을 말했다. 經脈에 대하여 血氣를 운행시키고 陰陽을 운영한다고 했으므로 經脈은 氣로 치환하여 말하면 營氣를 말하는 것으로, 營氣는 經脈의 노선을 따라서 如環無端하게 움직이지만, 衛氣는 標疾滑利하여 그 운행이 일정한 노선을 따르지 않는 특징이 있다.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하여 앞뒤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利關節’과 ‘關節清利’에 쓰인 ‘關節’은 인체 내의 關鍵이 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다. 關節清利는 關鍵이 되는 마디에 重濁한 瘀血이 끼지 않고 輕清한 氣血을 순조롭게 운행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本藏」에 나오는 ‘關節’을 joint로 英譯하였다.⁴⁹⁾

8) 『靈樞·五禁』

黃帝曰，何謂五禁，願聞其不可刺之時。岐伯曰，甲乙日自乘，無刺頭，無發矇於耳內。丙丁日自乘，無振埃於肩喉廉泉。戊己日自乘四季⁵⁰⁾，無刺腹，去爪瀉水。

pp.51-54. 황제가 기백에게 물어 말하기를 : 사람의 血氣와 精神은 生을 받들어서 性命에 두루 미치는 것이고, 經脈은 血氣를 운행하여서 陰陽을 운영하고 筋骨을 적셔 주며 關節을 활리하게 하는 것이다. 衛氣는 生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皮膚를 채워주며 腠理를 살찌게 하고 關闔을 주관하는 것이다. 志意는 정신을 제어하고 혼백을 수렴하며 汗을 적절하게 하고 息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血이 造化로우면 經脈이 흘러 행하여 陰陽을 운영하고 鬚이 筋骨이 굳세고 힘이 있고, 關節이 부드러울 것이다.

49)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689. “The functions of the channels of man, ……to smooth the joints. ……Thus, when the blood is harmonious, ……the joints facile.”

50)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179-180. 四季는 衍文으로 보여 해석하지 않았다.

庚辛日自乘, 無刺關節於股膝. 壬癸日自乘, 無刺足脛, 是謂五禁.⁵¹⁾

上記 부분은 『靈樞·五禁』의 중반부로 ‘關節’이라는 단어는 총 1회 나온다. 五禁은 다섯 가지 鍼刺禁忌인데, 天人相應의 원리에 따라 甲乙日에는 머리, 丙丁日에는 어깨와 咽喉, 戊己日에는 배와 四肢, 庚辛日에는 關節股膝, 壬癸日에는 발과 정강이가 서로 응하므로 應하는 부위에는 刺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⁵²⁾ 甲乙부터 壬癸에 이르는 天干은 머리부터 발에 순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關節’은 庚辛日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는데, 庚辛日에 氣가 股關節이나 膝關節에서 응하므로 股膝에서 ‘關節’을 자침하지 말라고 할 때의 ‘關節’은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하여 앞뒤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股關節이나 膝關節 등 인체에서 關鍵이 되는 마디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五禁」에 나오는 ‘關節’ 부분의 英譯이 누락되어 ‘關節’을 어떻게 英譯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⁵³⁾

51)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178-182. 황제께서 말하기를 어떤 것을 五禁이라고 일컫습니까? 원컨대 그 가히 자침할 수 없는 때를 듣고 싶습니다. 기백이 말하기를, 甲乙日이 되면 머리에 자침하면 안 되고, 귀 속에 發瘖해서 안 되며, 丙丁日이 되면 어깨와 咽喉와 廉泉에서 振埃하면 안 되고, 戊己日이 되면 배에 자침하면 안 되고, 去爪로 水氣를 없애면 안 되며, 庚辛日이 되면 넓적다리나 무릎에서 關節에 자침하면 안 된다. 壬癸日이 되면 발과 정강이에 자침하면 안 되니 이를 五禁이라고 일컫는다.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314-323. 五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靈樞·刺節眞邪』에 나오는 五節의 내용과 함께 연관시켜 살펴봐야 한다. 甲乙日에 시행하지 않는 發瘖法은 五節 중 하나로 『靈樞·刺節眞邪』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頭部에 있는 聽宮穴에 자침하여 눈과 귀를 자극함으로써 잘 보이고 잘 들리게 하는 鍼法이므로 甲乙日에 쓰지 말라고 하였고, 丙丁日에 시행하지 않는 振埃法도 五節 중 하나로 『靈樞·刺節眞邪』의 내용에 따르면 天容이나 廉泉穴 등을 취하여 기침·上氣·胸滿·胸痛·喘喝·肩息 등을 치료하는 鍼法이므로 丙丁日에 쓰지 말라고 하였으며, 戊己日에 시행하지 않는 去爪法도 五節 중 하나로 『靈樞·刺節眞邪』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關節肢絡에 자침하여 水腫을 치료하는 鍼法으로 戊己日에 쓰지 말라고 하였다. 庚辛日과 壬癸日에는 별도로 五節을 언급하지 않았다.

53)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

9) 『靈樞·刺節眞邪』

黃帝問於岐伯曰, 余聞刺有五節, 奈何. 岐伯曰, 固有五節, 一曰振埃, 二曰發瘖, 三曰去爪, 四曰徹衣, 五曰解惑. ……去爪者, 刺關節肢絡也. ……黃帝曰, 刺節言去爪, 夫子乃言刺關節肢絡, 願卒聞之. 岐伯曰, 腰脊者, 身之大關節也. 肢頸者, 人之管以趨翔也. 莖垂者, 身中之機, 陰精之候, 津液之道也. 故飲食不節, 喜怒不時, 津液內溢, 乃下留於壘, 血道不通, 日大不休, 俛仰不便, 趨翔不能, 此病榮然有水, 不上不下, 鈹石所取, 形不可匿, 常不得蔽, 故命曰去爪.⁵⁴⁾

上記 문장은 『靈樞·刺節眞邪』의 五節 관련 내용으로 위 문장에서 ‘關節’은 총 3회가 나오는데, 五節 중 去爪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다. 去爪는 손톱을 깎아낸다는 의미로 關節肢絡⁵⁵⁾에 刺鍼하여 水腫을 치료하는 刺鍼法이다.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했을 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去爪法에서 3회 언급된 ‘關節’은 “腰脊者, 身之大關節也.”⁵⁶⁾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인체 내에서 關鍵이 되는 마디를 일컫는 것으로 사료된다. 혹은 『靈樞·九鍼論』에서 淫邪가 몸에 흘러넘치면 風水의 형상과 같아서 머물러 機關의 큰

術出版社. 1997. p.738.

54)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305-325. “去爪는 四肢關節의 絡脈에 자침하는 것이다. …… 황제가 말하기를 刺節에서 말한 去爪를 선생님께서는 關節의 肢絡에 刺鍼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원컨대 모두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말하기를, 허리와 척추는 몸의 큰 관절이고, 팔다리는 사람의 걸음을 주관하며, 陰莖과 辜丸은 몸의 樞機이고 陰精이 나오는 곳이며 津液의 길이기 때문에 飲食에 절도가 없고 七情이 적절하지 못하면 津液이 안으로 넘쳐 辜丸으로 흐르고 水道가 통하지 않아서 陰囊이 날로 커져 屈伸하기가 불편하고, 걸어 다닐 수 없는데, 이러한 질환은 물이 모여 있어서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니, 鈹石이나 砭石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 모양을 숨길 수 없고 치마로도(常을 裳과 통하는 것으로 보았음) 가려지지 않으므로 去爪라고 하는 것입니다.”

55)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450-453. ‘關節肢絡’이 2번 반복되는데, 이에 대하여 『太素』에서는 “去爪者, 刺關節之支絡也. 關, 四支也. 四關諸節之際, 大節也. 支絡, 孫絡也.”라고 하여 ‘關節之支絡’이라고 하였으니, 楊上善은 去爪法을 쓰는 자리를 關節 부위에서 갈라지는 絡支 부위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56)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305-325.

표 1. 『黃帝內經』의 關節의 의미

『內經』 篇名	‘關節’이 쓰인 原文	‘關節’의 의미
『素問·刺禁論』	‘刺關節中’	關鍵이 되는 마디
『素問·鍼解』	‘寒關節’	해석 불가
『素問·氣交變大論』	‘外在關節’	關鍵이 되는 마디
『素問·六元正紀大論』	太陰司天之政 ‘關節不利’	關鍵이 되는 마디, 關門이 되는 마디
	少陰司天之政 ‘關節禁固’	關鍵이 되는 마디
	水鬱之發 ‘大關節不利’	關鍵이 되는 마디
『素問·至真要大論』	‘大關節不利’	關鍵이 되는 마디
『靈樞·官鍼』	‘病水腫不能通關節者’	關鍵이 되는 마디, 關門이 되는 마디
『靈樞·本藏』	‘利關節’, ‘關節清利’	關鍵이 되는 마디
『靈樞·五禁』	‘無刺關節於股膝’	關鍵이 되는 마디
『靈樞·刺節眞邪』	‘刺關節肢絡也’, ‘刺關節肢絡’, ‘身之大關節也’	關鍵이 되는 마디, 關門이 되는 마디
『靈樞·九鍼論』	‘取大氣之不能過於關節者也’, ‘主取大氣不出關節者也’	關鍵이 되는 마디, 關門이 되는 마디

마디를 통과하지 못할 때 大鍼을 써서 치료한다고 했는데⁵⁷⁾, 이는 水腫의 病證에 去爪法을 쓰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기서의 ‘關節’은 關門이 되는 마디로도 볼 수 있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刺節眞邪」에 나오는 ‘關節’을 joints로 英譯하였다.⁵⁸⁾

10) 『靈樞·九鍼論』

九者, 野也, 野者, 人之節解皮膚之間也, 淫邪流溢於身, 如風水之狀, 而溜不能過於機關大節者也, 故爲之治鍼, 令尖如挺, 其鋒微員, 以取大氣之不能過於關節者也. 黃帝曰, 鍼之長短有數乎. 岐伯曰, ……九曰大鍼, 取法於鋒鍼, 其鋒微員, 長四寸, 主取大氣不出關節者也, 鍼形畢矣. 此九鍼大小長短法也.⁵⁹⁾

上記 문장은 『靈樞·九鍼論』의 문장으로 數와 九鍼을 연관시켜 설명하였고, 九鍼의 모양 및 主治證을 설명하였다. ‘關節’은 총 2회가 나오는데, 九鍼 중 아홉 번째 鍼인 大鍼에서 나왔다. 淫邪가 몸에 흘러넘치면 風水의 형상과 같아서 머물러 ‘機關’의 큰 마디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끝을 몽둥이와 같이 하고 끝을 약간 둥글게 해서 ‘關節’을 통과하지 못하는 大氣를 취한다고 할 때 한 번 나왔고, 아홉 번째를 大鍼이라고 부르는데 鋒鍼을 본받은 것이니, 그 끝이 약간 둥글고 길이는 4촌이며 ‘關節’에서 나가지 않는 大氣를 다스린다고 할 때 또 한 번 나왔다.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에 ‘急所

57)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348-354. “淫邪流溢於身, 如風水之狀, 而溜不能過於機關大節者也, 故爲之治鍼, ……九曰大鍼.”

58)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p.789-791. “The Qushui pricking therapy is to prick the collateral-branches of the joints. ……The Qushui pricking therapy you said is to prick the collateral-branches of the joints. ……The loins and the spine are the larger joints of the body.”

59)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348-354. “9는 九野이니, 九野는 사람의 뼈마디와 피부의 사이이니, 淫邪가 몸에 흘러넘치면 風水의 형상과 같아서 머물러 機關의 큰 마디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침을 만들에 끝을 몽둥이와 같이 하고 끝을 약간 둥글게 해서 關節을 통과하지 못하는 大氣를 취하는 것이다. 황제가 말하기를 鍼의 장단에 일정한 度數가 있습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9번을 大鍼이라고 부르는데 鋒鍼을 본받은 것이니, 그 끝이 약간 둥글고 길이는 4촌이며 關節에서 나가지 않는 大氣를 다스립니다. 鍼의 형태가 끝났으니, 이것이 九鍼의 大小長短의 법입니다.”

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를 적용하여 앞뒤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 쓰인 2회의 '關節'은 '溜不能過於機關大節'에 쓰인 '機關大節'로 인하여 關鍵의 마디로 볼 수도 있고, 大氣가 넘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關門의 마디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機關이라는 말은 『素問·厥論』에서 "少陽厥逆, 機關不利, 機關不利者, 腰不可以行, 項不可以顧."⁶⁰⁾라고 할 때도 쓰였는데, 여기서 機關은 인체 내의 腰椎나 頸椎와 같은 關鍵이 되는 마디를 가리킨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大鍼에 대하여 "大鍼者, 尖如挺, 其鋒微員, 以瀉機關之水也."⁶¹⁾라고 하여 九鍼 중 大鍼으로 機關의 물을 瀉한다고 하였고, 上記 『靈樞·九鍼論』에서 大鍼과 관련하여 '關節'을 통과하지 못하는 大氣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는 『靈樞·刺節眞邪』에서 언급한 去爪法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大氣가 關鍵이 되는 마디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가 있어야 水腫이 형성되지 않는데, 大氣가 關門이 되는 마디 혹은 關鍵이 되는 마디를 넘지 못하고 停滯될 경우에 水腫이 형성되며, 이때 大鍼으로써 차침하여 大氣가 잘 넘어갈 수 있게 돕는다. 大氣 云云한 것은 氣의 盛衰가 津液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內經』 英譯本에서는 「九鍼論」에 나오는 '關節'을 joints로 英譯하였다.⁶²⁾

Ⅲ. 考察

서양의 해부학 서적이 일본에 들어온 뒤 일본인들은 해부를 통해 서양의 해부도가 실제 해부를 했을 때의 모습을 잘 반영하여 서양 해부학 서적의 번

역을 결심했고,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古方派 한 의사였던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澤)는 자연스럽게 한의학 서적으로부터 대량의 해부학 어휘를 흡수하여 번역을 시행했으며⁶³⁾, 이중 라틴어 articulatio나 네덜란드어 geleding을 關節로 번역했다.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澤)가 한의학 서적으로부터 대량의 해부학 어휘를 흡수하여 번역을 시행했다는 것에 의거하면 關節이라는 용어도 『內經』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內經』 내에서 '關'이라는 용어의 쓰임과 '節'이라는 용어의 쓰임을 살펴 정리해 보니, '關'에는 急所, 잠그다, 關門, 關鍵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節'에는 마디, 뼈마디, 절제, 절도, 예절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關'과 '節'이 합쳐진 '關節'이라는 단어는 '節'의 의미에서 절제, 절도, 예절 등을 제외하고 '마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內經』에서 '關節'을 검색해보고, 검색한 원문의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고, '關'과 '節'이 합쳐서 생길 수 있는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 등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內經』 各篇의 '關節'은 대부분 '關鍵의 마디'를 의미했으며, 水腫이나 風濕關節痛과 관련된 '關節'은 '關鍵의 마디' 외에도 '關門의 마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素問·刺禁論』의 "刺關節中, 液出, 不得屈伸."⁶⁴⁾은 關節에 刺鍼함으로써 津液이 흘러나와 屈伸할 수가 없게 되므로 비교적 크고 주요한 마디이니 關鍵의 마디이며, 『素問·鍼解』는 竹筒이 좁먹어 의리가 손상되었기에 해석이 不可했으며, 『素問·氣交變大論』의 "木不及, ……春有慘淒殘賊之勝, 則夏有炎暑燔燂之復. 其眚東, 其藏肝, 其病內舍肢脇, 外在關節."⁶⁵⁾에 쓰인 '關節'은 木不及에 의한 영향이 안으로

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0.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11-19.

62) 王冰 原注, 吳連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7. pp.810-811. "It is for to treat the diseases of the retention of the water energy and the failure of the air to pass the joints. ……The ninth kind of needle is called the large needle, ……it is mainly for treating the impediment of the air between the joints."

63) 牛亞華. 中日接受西方解剖學之比較研究. 西北大學. 2005. pp.1-178.

64) 朴贊國 譯注. 改訂版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坡州. 集文堂. 2005. pp.858-861.

65)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119-126.

표 2. 關節과 비슷한 용어

‘關節’과 비슷한 용어	『內經』 편명	‘關節’과 비슷한 용어가 쓰인 원문
四關	『靈樞·九鍼十二原』	‘四關主治五藏’
八節	『靈樞·九鍼論』	‘人之股肱八節也’
肢節	『靈樞·海論』	‘外絡於肢節’
	『靈樞·衛氣』	‘外絡於肢節’
	『靈樞·邪客』	‘人之肢節’
八虛	『靈樞·邪客』	‘八虛者，皆機關之室，眞氣之所過’
八谿	『素問·至眞要大論』	‘此四肢八谿之朝夕也’
十二節	『素問·生氣通天論』	‘五藏十二節’
	『靈樞·經別』	‘合之十二月十二辰十二節’
	『靈樞·邪客』	‘人有十二節’

는 肝으로 병증이 나타나고, 밖으로는 주요한 關節에 병변이 나타나므로 關鍵이 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다. 『素問·六元正紀大論』의 “凡此太陰司天之政，……初之氣，……關節不利.”⁶⁶⁾는 太陰司天의 상황에서 初之氣가 厥陰風木이므로 風濕의 相薄으로 關節이 滑利하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서의 ‘關節’은 風濕相薄으로 인한 關節痛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인체 내의 關門이 되는 마디 혹은 關鍵이 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다. 같은 篇의 “凡此少陰司天之政，……初之氣，關節禁固.”⁶⁷⁾는 初之氣가 太陽寒水로 肅고 主氣는 厥陰風木으로 안으로 陽氣가 발생하는데 太陽寒水에 의해 막혀서 關節이 잘 움직이지 않으므로 여기에 쓰인 ‘關節’은 인체 내의 關鍵이 되는 마디로 사료된다. 같은 篇의 “水鬱之發，……故民病寒客心痛，腰痠痛，大關節不利.”⁶⁸⁾에서의 ‘關節’은 울체되어 있던 水氣가 한꺼번에 발휘되어 큰 추위로 인체 내 큰 관절이 滑利하지 못한 것이고, 『靈樞·刺節眞邪』에서 “腰脊者，身之大關節也.”⁶⁹⁾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에

쓰인 ‘關節’은 허리뼈 또는 척추와 같은 인체의 關鍵이 되는 마디로 사료된다.

『素問·至眞要大論』의 “厥陰在泉，客勝則大關節不利.”⁷⁰⁾의 ‘關節’도 厥陰在泉으로 風이 動하여 血이 소모되고 肝木이 제어를 받아 큰 관절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인체 내의 關鍵이 되는 마디를 뜻한다.

『靈樞·官鍼』의 “病水腫不能通關節者，取以大鍼.”⁷¹⁾의 ‘關節’은 水腫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인체 내 關門이 되는 마디 혹은 關鍵이 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다.

『靈樞·本藏』에서 “經脈者，所以行血氣而營陰陽，濡筋骨，利關節者也.”⁷²⁾，“是故血和則經脈流行，……關節清利矣.”⁷³⁾의 ‘關節’은 인체 내의 關鍵의 마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關節清利는 關鍵이 되는 마디에 重濁한 瘀血이 끼지 않고 輕淸한 氣血을 순조

66)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243-251.

67)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254-260.

68)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315-316.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314-323.

70)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pp.406-415.

71)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上.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90-92.

72)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51-54.

73)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51-54.

롭게 운행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靈樞·五禁』의 “庚辛日自乘，無刺關節於股膝。”⁷⁴⁾도 股膝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關節’은 인체 내의 關鍵이 되는 마디로 볼 수 있다.

『靈樞·刺節眞邪』에서 “去爪者，刺關節肢絡也。……夫子乃言刺關節肢絡，……腰脊者，身之大關節也。”⁷⁵⁾라고 했는데, 腰脊이 인체 내에서 큰 ‘關節’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의 ‘關節’은 인체 내의 關鍵이 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다.

『靈樞·九鍼論』의 “九者，……故爲之治鍼，……以取大氣之不能過於關節者也。……九曰大鍼，……主取大氣不出關節者也。”⁷⁶⁾의 ‘關節’은 水腫病으로 津液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大氣가 ‘關節’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서의 ‘關節’은 關門이 되는 마디로 볼 수도 있고, 『靈樞·九鍼論』의 “淫邪流溢於身，如風水之狀，而溜不能過於機關大節者也。”⁷⁷⁾에서 나온 것과 같이 機關大節로 보아 關鍵이 되는 마디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內經』에서의 ‘關節’은 해석이 불가능한 『素問·鍼解』를 제외했을 때, 나머지 아홉 개의 篇에 나오는 16개의 ‘關節’은 공통적으로 인체 내에서 주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關鍵이 되는 마디를 가리키며, 風濕相搏으로 인한 關節痛이나 水腫과 관련된 ‘關節’은 關門이 되는 마디로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內經』 내에서의 ‘關節’을 문자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학적 맥락을 통해 ‘關節’의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므로 다음에서는 ‘關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四關’, ‘八節’, ‘肢節’, ‘八虛’, ‘八谿’, ‘十二節’ 등의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다.

‘四關’은 『靈樞·九鍼十二原』 “五藏有六府，六府有

十二原，十二原出於四關，四關主治五藏。”⁷⁸⁾에 나왔는데, 이 구절과 관련하여 張介賓은 “四關者，卽兩肘兩膝，乃周身骨節之大關也。故凡井榮腧原經合穴，皆手不過肘，足不過膝，而此十二原者，故可以治五藏之疾。此十二原者，乃五藏之氣所注，三百六十五節氣味之所出也。”⁷⁹⁾라고 했다. 이는 ‘四關’이 양쪽의 肘關節과 膝關節, 즉 인체 내 關節 중에서 큰 關鍵이 되는 마디임을 말하고, 十二原穴이 팔에서는 肘關節 이하 부위에서, 다리에서는 膝關節 이하 부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五臟을 다스릴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四關’은 五臟을 치료함에 있어서 關鍵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關節’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八節’은 『靈樞·九鍼論』 “八者，風也，風者，人之股肱八節也。”⁸⁰⁾에서 쓰였는데, ‘八節’에 대하여 馬蒔는 “人之手足，各有股肱關節計八。”⁸¹⁾이라고 했다. 이는 ‘八節’이 넓적다리 부위(股)를 중심으로 股關節과 膝關節이 있고, 上膊(肱)을 중심으로 肩關節과 肘關節이 있어서 좌우의 개수를 모두 합하여 8개가 되고, 인체 내 주요 관절을 가리키므로 ‘關節’과 비슷한 측면이 있음을 말한다.

‘肢節’은 『靈樞·海論』 “夫十二經脈者，內屬於腑臟，外絡於肢節。”⁸²⁾, 『靈樞·衛氣』 “其氣內於五藏，而外絡肢節。”⁸³⁾, 『靈樞·邪客』 “黃帝問於伯高曰，願聞人之肢節，以應天地奈何。”⁸⁴⁾에서 쓰였는데, 張介賓은 ‘肢節’에 대하여 “四肢骨節也。”⁸⁵⁾라고 하여 팔다리 四肢에 분포되어 있는 骨節이라고 하였고, 또 한편으

74)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178-182.
75)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305-325.
76)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348-354.
77)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p.348-354.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
79)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333.
8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31.
81) 馬蒔 著. 孫國中·方向紅 點校.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528.
8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4.
8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6.
8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8.
85)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119.

로는 “其表裏運行之氣，內則爲藏府，外則爲經絡。”⁸⁶⁾ 이라고 하여 ‘肢節’을 五臟의 외재적 표현인 經絡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肢節’은 四肢에 있으면서 五臟과 서로 氣를 주고받는 역할을 담당하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關節’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黃帝內經』에서 비록 ‘關’과 ‘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八虛’라는 용어도 ‘關節’과 연관이 있었다. 『靈樞·邪客』에서 “黃帝問於岐伯曰，人有八虛，各何以候。岐伯答曰，以候五藏。黃帝曰，候之奈何。岐伯曰，肺心有邪，其氣留於兩肘。肝有邪，其氣留於兩腋。脾有邪，其氣留於兩髀。腎有邪，其氣留於兩膕。凡此八虛者，皆機關之室，眞氣之所過，血絡之所遊。邪氣惡血，固不得住留。住留則傷筋絡骨節，機關不得屈伸，故拘攣也。”⁸⁷⁾라고 하였는데, 이는 ‘八虛’ 즉 兩肘, 兩腋, 兩髀, 兩膕의 상태로 五臟의 상태를 살피고, ‘八虛’는 機關의 室로 眞氣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였으니, ‘八虛’는 人體 내에서 關鍵이 되는 마디라고 할 수 있다. 張志聰은 이에 대하여 “此言五藏之血氣，從機關之虛，出於膚表，與營衛宗氣之相合也。九鍼章曰，節之交，神氣之所游行出入，兩肘兩腋兩髀兩膕乃關節交會之處，心藏之神氣從此而出，如五藏有邪則氣留於此而不得布散矣。……如外感于邪氣，惡血留滯于此，則骨節機關不得屈伸而病攣也。”⁸⁸⁾라고 했는데, 이는 ‘八虛’ 부위가 心藏의 神氣가 흘러나와 유행하고 출입하는 곳으로 外感 邪氣가 있으면 이곳에 惡血이 머물러 屈伸을 잘할 수가 없어 拘攣함을 말한다. 神氣를 云云한 것은 『靈樞·九鍼十二原』에서 ‘節’과 관련하여 “節之交，三百六十五會，知其要者，一言而終，不知其要，流散無窮，所言節者，神氣之所游行出入也，非皮肉筋骨也。”⁸⁹⁾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八虛’는 神氣가 출입하는 곳으로 ‘關節’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素問·五藏生成』에서는 “諸脈者，皆屬於目，諸髓者，皆屬於腦，諸筋者，皆屬於節，諸血者，皆屬於心，諸氣者，皆屬於肺，此四肢八谿之朝夕也。”⁹⁰⁾라고 하여 ‘八谿’가 쓰였는데, 이 구절에 대하여 張介賓은 “四支者，兩手兩足也。八谿者，手有肘與腋，足有髀與膕也。此四支之關節，故稱爲谿。朝夕者，言人之諸脈髓筋血氣，無不由此出入，而朝夕運行不離也。邪客篇曰，人有八虛，皆機關之室，眞氣之所過，血絡之所遊，則此之謂。一曰，朝夕卽潮汐之義，言人身氣血往來，如海潮之消長，早曰潮，晚曰汐者，亦通。”⁹¹⁾이라고 하여 ‘八谿’가 兩肘, 兩腋, 兩髀, 兩膕, 즉 ‘八虛’와 동일하게 機關의 室로 眞氣가 지나가는 곳이고, 밀물과 썰물처럼 人體 내의 脈髓筋血氣가 이곳을 통해서 출입한다고 하였다. 이는 ‘八谿’가 ‘關節’과 비슷하게 人體 내의 關鍵이 되는 마디를 가리킴을 말한다.

‘十二節’은 『素問·生氣通天論』 “天地之間，六合之內，其氣九州九竅，五藏十二節，皆通乎天氣。”⁹²⁾, 『靈樞·經別』 “余聞人之合於天道也，內有五藏，以應五音五色五時五味五位也。外有六府，以應六律。六律建陰陽諸經，而合之十二月，十二辰，十二節，十二經水，十二時，十二經脈者，此五藏六府之所以應天道。”⁹³⁾, 『靈樞·邪客』 “歲有十二月，人有十二節。”⁹⁴⁾에 나왔는데, ‘十二節’과 관련하여 高世栻은 “兩手，兩臂，兩足，兩膕，兩髀，皆神氣之游行出入也。”⁹⁵⁾라고 하여 ‘十二節’이 人體 내의 關鍵이 되는 마디로 神氣가 유행하고 출입함을 밝혔고, 張介賓은 “四肢各三節，是爲十二節。”이라고 하여 四肢에 있는 세 개의 마디가 모두 모여 ‘十二節’이 됨을 말하였다. ‘十二節’은 神氣가 유행하고 출입하는 곳이므로 ‘關節’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86)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325.

8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00.

88) 張志聰 集注. 方春陽 等 點校. 黃帝內經集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6. p.408.

8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

9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9.

91)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352.

9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

9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7.

9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9.

95) 高士宗 著. 孫國中·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p.14-15.

이상의 내용을 통해 ‘四關’, ‘八節’, ‘肢節’, ‘八虛’, ‘八谿’, ‘十二節’ 등의 용어들은 五臟을 다스리고, 五臟과 서로 氣를 긴밀하게 주고받으며, 神氣나 眞氣가 出入하여 ‘關節’과 같이 인체 내에서 關鍵이 되는 마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關節’은 『內經』 내 고유의 氣 관점을 토대로 五臟과 긴밀하게 연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양 해부학책에 적힌 關節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關節은 현대에서 의학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되는 단어이므로 『內經』의 ‘關節’을 처음 보았을 때 해부학의 형태학적인 joint만을 생각하기가 쉽고, 『內經』 英譯本에서도 ‘關節’을 대부분 joint로 번역하였는데, 『內經』 내에서 ‘關節’은 關門 혹은 關鍵이 되는 마디로 인체 내에서 핵심이 되고 요충지가 되어 전체 몸의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마디이므로 현대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內經』에서 ‘關節’은 關門 혹은 關鍵이 되는 마디로 쓰였는데, 마디의 목적은 구부리고 활동하기 위한 것이고, 운동성, 유동성, 활동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素問·氣交變大論』에서 ‘關節’을 肝에 배속시키기도 하였다.

일본인들이 네덜란드어로 쓰인 해부학책을 日本語(漢文)로 번역하여 『解體新書』를 출판했는데, 라틴어 articulatio나 네덜란드어 geleedingen을 關節로 번역하였고, 그 關節의 범위 안에는 可動關節과 不動關節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그러나, 『內經』에 쓰인 ‘關節’은 五臟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며 神氣가 유행하고 출입하는 關門 혹은 關鍵이 되는 마디이므로 『內經』 고유의 氣 관점을 지니지 않고 단순하게 현대 해부학적인 joint의 개념으로 『內經』에 쓰인 ‘關節’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內經』에서의 ‘關節’이 쓰인 부분을 읽을 때는 『內經』 고유의 氣 관점을 지니고 五臟과의 긴밀한 연관성, 神氣 혹은 眞氣가 출입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關節’이 쓰인 부분을 읽어야 마땅하다.

IV. 結論

『黃帝內經』에 나오는 ‘關節’의 의미에 대한 고찰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黃帝內經』에 쓰인 ‘關節’은 ‘關’과 ‘節’이라는 용어의 쓰임을 정리해보았을 때 ‘急所와 마디’, ‘關門의 마디’, ‘關門과 마디’, ‘關鍵과 마디’, ‘關鍵의 마디’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 『黃帝內經』에 쓰인 ‘關節’은 대부분 ‘關鍵이 되는 마디’를 의미했으며, 水腫이나 風濕關節痛과 관련한 ‘關節’은 ‘關門의 마디’를 의미하였다.

3. 『黃帝內經』에서는 ‘四關’, ‘八節’, ‘肢節’, ‘八虛’, ‘八谿’, ‘十二節’ 등이 五臟을 다스리고, 五臟과 서로 氣를 긴밀하게 주고받으며, 神氣나 眞氣가 出入하여 ‘關節’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4. 『黃帝內經』에 쓰인 ‘關節’은 五臟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며 神氣가 유행하고 출입하는 關門 혹은 關鍵이 되는 마디이므로, ‘關節’이 포함된 문장을 읽을 때는 『黃帝內經』 고유의 氣 관점을 지니고 五臟과의 긴밀한 연관성, 神氣 혹은 眞氣가 출입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마땅하다.

Reference

1. 高士宗 著. 孫國中·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2. 고은숙.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해부학』. 연세의사학. 2018. 21(2).
<https://doi.org/10.35276/yjmh.2018.21.2.101>
3. 김경호. 일본어에서 차용된 의학용어 조사 연구-번역의학서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007. 1(33).
4.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上. 大田. 周珉出版社. 2003.
5. 金善鎬 編著. 善乎靈樞 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3.
6. 김성수. 일본의 해부학 수용 초기의 특성 『해체신서(解體新書)』와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에 나타난 세계와 인체. 연세의사학. 2018. 21(2).
<https://doi.org/10.35276/yjmh.2018.21.2.53>

7. 김영수. 일본의 해부학 서적 번역과 한말 해부학 교과서. 연세의사학. 2018. 21(2).
<https://doi.org/10.35276/yjmh.2018.21.2.79>
8.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大漢韓辭典. 서울. 敎學社. 1998.
9. 馬蒔 著. 孫國中·方向紅 點校.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10. 朴贊國 譯注. 改訂版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坡州. 集文堂. 2005.
11.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坡州. 集文堂. 2009.
12. 박형우, 박준형.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와 편찬 배경. 대한해부학회지. 2006. 39(6).
13.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三). 大阪. オリエント出版社. 1987.
14. 孫迪. 『黃帝內經』形體結構複音術語研究. 遼寧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21.
<https://doi.org/10.27213/d.cnki.glnzc.2021.000001>
15. 스키타 겐과쿠 외 지음. 김성수 옮김. 해체신서. 坡州. 한길사. 2014.
16. 양영규, 정혁상, 백유상. 『黃帝內經』의 肉 개념과 관련 用語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 28(2).
<https://doi.org/10.14369/skmc.2015.28.2.115>
17. 여인석, 황상익.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정. 의사학. 1994. 3(2).
18. 域外漢籍珍本文庫編纂出版委員會 編.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主持編纂. 解體新書(域外漢籍珍本文庫子部).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北京. 人民出版社. 2011.
19. 牛亞華. 中日接受西方解剖學之比較研究. 西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20.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改訂版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21. 張志聰 集注. 方春陽 等 點校. 黃帝內經集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6.
22.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23. 정인혁, 고기석. 해부학 용어가 걸어온 길. 대한체질인류학회지. 2017. 30(4).
24. 許慎 撰. 段玉裁 注. 許惟賢 整理. 說文解字注 上. 南京. 鳳凰出版社. 2007.
25. 許慎 撰. 段玉裁 注. 許惟賢 整理. 說文解字注 下. 南京. 鳳凰出版社. 2007.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28. 黃元御 原著. 孫國中, 方向紅 校注. 素問縣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29. 관절. 네이버 지식백과. 2000. [cited on January 25, 2022] ; Available from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4632&cid=40942&categoryId=32319>
30. 해부학 권1. 국립한글박물관. 2014. [cited on January 25, 2022] ; Available from : https://www.hangeul.go.kr/bbs/publicBbsView.do?curr_menu_cd=0106040000&pageIndex=1&bbs_id=4&bbs_no=32&mode=&search_type=title&search_text=
31. 해체신서. 네이버 지식백과. 2000. [cited on January 25, 2022] ; Available from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93928&cid=40942&categoryId=33414>
32. Ontleedkundige Tafelen. 慶應義塾大学. 2020. [cited on January 25, 2022] ; Available from : <https://dcollections.lib.keio.ac.jp/ja/anatomia/dutch>